국제신문

인쇄 닫기

[아침숲길] 옛 것을 버리고 새 일을 추구하자 /이희숙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6-01-08 19:21:43 / 본지 19면

'미래'라는 단어는 무조건 좋아하나, '새해' 단어는 다소 망설이게 된다. 지난해 일들을 평가해 새해에 포기할 일, 계속할 일, 그리고 새로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바쁘다는 핑계로 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피하고 싶지만, 양심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나의 이름 '희숙'이다. 한자로 기쁠 '희(喜)'와 맑은 '숙(淑)'이다. 부모님께서 나의 생이 그렇게 되기 원하셨음을 항상 마음에 두며, 1975년 최초 동양 유학생으로 스칸디나비아에 정착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고수할 수 있는 최고 약이 됐다.

오랜 세월이 지나 어느 곳에서도 생존할 용기가 있는 지금 외국인들에게 "Happy and Pure"라고 이름을 소개하며 "매일 아침 샤워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웃음을 터트린다.

2016년 새해가 됐다. 나는 현재의 불안정한 세계 정황으로 'Happy' 보장은 없지만, 'Pure' 만은 사우나로 유명한 핀란드에서 할 수 있다. 사실, 사춘기 때 부산 해운대에서 수영하며 밀려오는 큰 파도가 나의 흔적을 씻어가는 통쾌함을 즐겼다. 그러나 피오르드 노르웨이는 모래가 부족한 암석 해안인데다 당시 동양 여성이 지극히 드물었던 탓에 옥외 수영으로 남성들의 호기심 대상이 되는 게 싫었다. 1975년 이탈리아의 여름이었다. 푸른 지중해에서 수영하던 나를 한 미남 젊은이가 추적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이탈리아 할머니는 그를 향해 손짓하며 나에게서 사라지라고 고함쳤다. 나는 당황해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서 헤매다가 말미잘에 쏘여 응급차를 부른 추억이 있었다.

이 사건 후로 나는 관심을 수영장으로 바꾸었다. 거기서 헤엄친 자국의 물결무늬와 물 아래의 투명함을 보며 나의 이름을 되새겼다. 노르웨이 실내 수영장은 남녀 별도의 격일로 운영되며 수영복은 입지 않아도 되지만 이상하게 수영 모자는 의무적으로 써야 했다. 나는 당시 날씬한(?) 몸매로 젊은 블론디 여성들과 경쟁했고, 늙은 블론디-그레이 할머니가 나의 몸매를 칭찬할 때는 자기도취마저 가졌다. 이 수영장은 문화갈등에 헤맨 나에게 위로 감이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나의 정체성이 차츰 확인되며, 동시 좁은 공간을 반복해야 하는 빠른 속도가 귀찮아져 이번에는 사우나로 전향했다. 열기 속에서도 투명한 정신으로 "선택된 인생도 좋지만, 나 스스로 선택함이 더 멋있는 생이다"라고 자문하기도 했다.

'사우나 나라' 핀란드를 첫 방문한 것은 1976년의 수학여행 때였다. 헬싱키 도시의 이름난 공공 사우나를 가자는 제안에 개방주의와 보수주의 노르웨이 학생들 간에 격한 토론이 벌어졌다. 남녀 함께 나체로 해야 한다는 사우나장의 법칙에 순진한 우리는 결국 디스코텍행을 택했지만, 한 여학생의 섭섭해 하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후 핀란드 취재차, 탐페레 도시의 훌륭한 사우나장을 방문했을 때였다. 나는 당연히 나체로 증기가 가득한 사우나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잠시 후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 얼굴을 돌렸다. 아차! 한 중년 남성이 바로 옆에서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동양 여성을 섹스의 대상으로 여기는 스칸디나비아 남성에게 나의 정체를 보여주며, 심지어 그가 나의 몸매를 보고 즐기고 있다 생각하니 괘씸하고 아찔했다.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그는 내가 동양 여성으로 부끄러워한다고 착각할 것이다. 순간의 결정을 위해 지혜가 필요했다. "하나님, 제발 더 뜨거운 온도를 내려 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즉시 응답이 왔다. 갑자기 높아지는 실내 온도에, 나의 옆 남성은 무거운 몸을 감당할 수 없는지, 잠시나마 이 진기한 눈 오락을 포기해야 했다.

찬물로 정신을 깨우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는 나를 여전히 볼 수 있기를 기대했겠지만, 나는 벌써 그

자리를 떠난 후였다. 이제야 사우나 문에 핀란드 어로 쓰인 안내서를 읽었다. 남녀 공동 사우나장임을!

얼마 전, 카리브 해로 유람선 여행을 했다. 벨라폰테의 '자메이카 안녕'을 듣고, 보물섬의 애꾸눈 선장을 만나고, 수영과 사우나로 나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였다. 나의 꿈과 허영은 여지없이 깨어졌다. 앞뒤가 똑같은 비대한 관광객들이 수영장에서 나의 시야를 괴롭혀 사우나장으로 피난 갔더니 한국어가 들렸다. "여기도 잘못 왔구나!" 나는 부유한 한국 중년 부인의 현재 대화체와 주제를 잘 모르나, "이 멀고 비싼 카리브의 유람선 사우나까지 와서 남의 이야기를 하며 마음과 신체를 해치는가?"라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왔다. 물론 인간은 자기 방식의 철학이 있다. 그러나 자신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인간은 남을 간섭할 시간이 없고, 남을 칭찬한다.

2016년이다. 핀란드의 사우나로 나의 이름을 되새기자. 그리고 실력 있고 인간적인 자신이 되도록 옛 것을 많이 버리고, 할 수 있으나 하지 못했던 새 일들을 추구하자.

저널리스트

부산의 큰 목소리, 국제신문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

국제신문

인쇄 닫기

[아침숲길] 어학 능력은 우리 정체성을 굳힌다 /이희숙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6-03-18 18:44:02 / 본지 19면

나는 여러 어학을 배웠다. 1975년 첫 유학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르웨이어의 이상한 알파벳 발음이 안돼 옆자리의 아시아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열등 클럽'을 만들자고 제의한 적도 있다. 나는 왜 어학에 관심을 가졌을까. 무엇보다 나는 언어에 알레르기를 앓아, 마음에 닿는 단어에는 행복하고 슬픈 단어에는 우울해진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나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의 제목만 읽어도, 나는 독일 베츨라에서 샬로테를 향한 괴테의 연정과 중세기 프랑스의 모아삭 수도원에서 일어난 신비를 연상한다.

그러나 내 마음을 가장 이끈 구절은 영국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1770~1850)의 시이다. 사춘기였던 우리에게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낭독해 주셨던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라는 구절은 나의 그림자가 되었다. '초원의 빛'(1961) 영화의 주인공 워런 비티와 나탈리 우드 팬이 될 기회를 부여했고, 아름다운 나라 노르웨이로 가도록 나의 발길을 무의식으로 자극했다.

시의 제목을 알려는 끊어지지 않는 소망은 30년이 지나서, 워즈워스가 태어난 영국 호반 지역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저녁 시 낭독에서 워즈워스 가문의 자손이 시 한 구절을 읽었다. 아! 그것은… 워즈워스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송시(Ode)'였다.

이 성취감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날의 아침 세미나였는데, 추측하건대 나를 제외한 모두는 영어가 모국어이며,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의 어학 교수나 전문가들로 보였다. 우리는 워즈워스의 시를 돌아가며 낭독했다. 내 차례가 되었다. 외국에 오래 있어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경상도 악센트의 영어 낭독에 주위가 조용해졌다. 유연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를 깨뜨린 것이다.

슬픈 마음에다 시 제목의 발견 기쁨까지 겹쳐, 나는 워즈워스의 집으로 향했다. 안개에 가랑비가 내리는 3월의 이른 봄, 수선화 무리와 희미한 가로등이 나의 동무가 되어 주었다. 미리 베란다에서 워즈워스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슬픔과 기쁨에 위로와 선물도 준비하고 있었다.

"미스 리, 세미나의 참가자들은 나의 이름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교수가 되었고 높은 월급을 받습니다. 나의 존재는 그들의 생존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피상적일 수 있죠. 그러나 미스 리, 먼 한국에서 여기까지, 심지어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시를 찾으려 30년이 지난 지금 나타난 당신을 더 감사히 여깁니다. 나의 시가 당신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질 때 시의 진귀함이 나타나며 나는 더 기쁩니다. 아직도 겨울이라 추워 감기 들지 모르며, 자정이 다 되어가니 걱정 말고 보금자리로 돌아가세요." 워즈워스는 동정(sympathy)이 아니고, 나를 이해한 감정이입(empathy)으로 타이르며 배웅해 주었다.

그 후 나는 영어에 자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은 나의 정체성에 도움이 되었다. 심지어 영국인들과 대화하며 웃음바다를 만들 수 있다. 영어를 잘함은 ▷관계대명사를 되도록 사용하지 말 것 ▷지나치게 형용사로 수식하지 말 것 ▷문장에서 올리고 내리는 인토네이션을 정확히 할 것.

다른 웃음 사건이 있다. 오래전 우화 작가 안데르센을 취재하러 덴마크 코펜하겐에 갔다. 온 김에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한국 발음)의 집을 방문하려 행인에게 물었다. 키엘케고드(Kierkegaard)라고 정확하게 덴마크 발음을 하였다. 그녀는 나를 흘끗 보더니, 시내 중심의 다른 방향으로 손짓했다. 한참 걸었으나, 철학자의 집 대신 묘지가 나타났다. 황당한 마음의 나에게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아차! 덴마크어로 묘지도 키엘케고드 이다. 그리고 행인은, 내가 감히 그들의 철학자를 찾음이 기대 이상이었고, 안데르센 묘지를 보려는 동양 관광인으로 해석했을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는 단어들을 문맥과 문화로 해석하는 기호학이 필요할

까?

지금도 어학들을 다듬는다. 어떤 어학은 학문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고, 어떤 어학은 인간 소통과 외교로써, 어떤 어학은 희미해져 가는 기억력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또 미지의 세계에 호기심을 열고 사고력을 생생케 하는 점도 있다. 실용적으로 여러 어학을 구사함은 관광에 매우 도움이 된다. 어느 나라를 가던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생기면 길거리의 경찰과 이야기하고, 아프면 약국에도 갈 수 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이 이유로 나는 핀란드 정부의 노인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열렬히 지지한다. 80살의 노인들도 젊은 시절에 배웠던 어학들을 지금도 잊지 않으려 추운 겨울의 얼음판 길바닥에도, 한없는 눈송이에도 교실을 찾아와 자리를 가득 채운다. 발음이 힘든 프랑스어를 이해하려 청각 기계까지 동원하는 그들에게 어학은 망상증을 방지한다. 나에게는 알레르기, 정체성, 건강의 만병통치제이다.

예술가·학자

부산의 큰 목소리, 국제신문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

국제신문

인쇄 닫기

[아침숲길] 학교 전통은 무형문화유산 /이희숙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6-05-27 19:08:51 / 본지 19면

유네스코 2003년 협약(UNESCO 2003 Convention)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 있는 유산' 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함을 국제적으로 공인하였다. 협약 제2조 1항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과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그리고 문화 공간이라고 정의돼 있다. 세대를 거쳐 전승하고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이들에 정체성 및 지속성을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주요 다섯 분야는 ▷언어 구전과 표현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제식과 축제 ▷자연과 우주의 지식과 실습 ▷전통적 공예 예술이다. 이 협약에 '전통'이라는 단어는 별도로 언급돼 있지 않다. 하지만 국어사전은 전통을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가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무형문화유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모교인 경남여고 때문이다. 옛 명문인 경남여고는 1927년 4월 23일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개교해 1953년 현재의 학교명으로 바뀌었다. 약 3만4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내년이면 9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몇 년 전 서울에서 고교 동창생 몇 명을 만났을 때 일이다. 모교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이제 학교가 형편없다더라"며 아쉬워했다. 우리가 졸업한 뒤 입시 제도가 바뀌어 시험 대신 소위 '뺑뺑이'로 학생을 뽑으면서 입학생 학력이 저하된 것이다.

이런 소식은 머나먼 외국에 사는 나에게는 충격일 뿐만 아니라 슬픔이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1968년 졸업생인 나에게 3년의 세라복(해군복) 교복은 머리가 좋다는 자부심의 암호였다. 또 세라복은 유학을 떠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부산은 항구도시로 배를 타고 세계를 왕래할 수 있는 해양대학생들을 키웠고, 진해의 해군들까지 웅성거렸다. 이들이 입은 멋진 세라복은 당시 몹시 어려웠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는 행운을 암시하였다.

비록 경남여고는 2010년 이후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되면서 학력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지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지난해 가을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학교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연락했다. 비가 내렸던 날 정문에 들어선 나를 반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옛 학교 모습과 사춘기 시절 꿈을 나누었던 등나무 그루는 당시의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도 사라진 셈이다. 안타까웠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 후배를 위해 강의할 주제를 의논했다. 선배 동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후배들에게 경남여고의 전통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다. 유·무형 전통을 되살리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 기회는 89회 동창 기념식까지 겹친 지난 4월에 이루어졌다. 부산의 한 호텔에서 1000여 명 동창생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40년 넘게 만나지 못한 동기생들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흰 머리와 검은 머리의 동창생들, 여러 나라에서 날아온 동창생들, 남편까지 동반한 커플 등등. 무엇보다 감명스러운 것은 교가였다. 가사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속에 숨은 지혜의 전통 즉 무형문화유산은 잊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 소개로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는 '나의 스칸디나비아'와 학생들의 미래 꿈을 연결하는 주제로 진행됐다. 거의 300명 학생이 모였다. 날씬한 교복에 깃을 빳빳이 세우며 자부심으로 수업을 듣던 지난날 우리 세대가 문득 떠올랐다. 21세기를 사는 지금 세대는 무뚝뚝해 보였고 앉아 있는 태도도 달랐고 어떨 땐 지나칠 정도로 활발했다. 직감적으로 지금 학생들은 물질적으로 분명히 진보했지만, 영혼은 저하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적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나의 유일한 기대인 그들의 지능도 진보했을 것이란 기대를 가졌다.

문득 생각났다. 아침 수업 시작 전 책상에 머리를 숙인 한국 고등학생들을 담임선생이 다독거려 주는 모습이 핀란드 TV에 방영된 적이 있다. 나도 한때 한국에서 강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눈을 감던 학생들을 보고 당황한 경험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엔은 한국 학생들의 높은 수학 수준을 부러워하는 핀란드의 교육을 칭찬했다. 세계 각처에서 핀란드 교육을 배우려 방문한다. 핀란드 교육은 정부의 정책 때문에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핀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도서관일 정도다. 핀란드 정부는 공산주의 몰락으로 수출길이 막혔고 경제가 침체했는데도, 장학금을 주며 공부를 장려했다.

교육이 핀란드의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된 것처럼 학교 전통은 전승하고 연마해 재창조해야 한다. 학교 전통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다. 경남여고 파이팅!

예술가·학자

부산의 큰 목소리, 국제신문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

국제신문

인쇄 닫기

[아침숲길] 우리 역사를 당면하고 재해석하자 /이희숙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2016-08-05 19:24:38 / 본지 19면

역사는 지난 시대에 남긴 기록물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이 겪은 일들 중 후세에 기억되는 사실이다. 있었던 과거를 그대로 밝히는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역사가의 관점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 쓰일 수 있는(해석되는) 설들로 논쟁이 되기도 한다.

'경계'(border)라는 단어 역시 여러 의미이나, 나에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리적 경계이다. 1970년 유럽 여행 당시 미약한 한국 정보로 나는 입국 절차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여권이 남한 것인지, 북한 것인지 열심히 조사하던 유럽 관리들의 모습이 슬픈 기억으로 아직 남아 있다.

이런 이유로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지난 6월 열린 '경계 없는 역사가들(Historians without borders)' 네트워크의 국제회의는 큰 의미가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전 외무장관이며 현재 국회의원인 에르키 투오미오야 박사가 창립했다.

역사가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의도는 축하 연사들의 리스트에서 알 수 있다. 우선 마르티 아티사리 핀란드 전 대통령은 국제 충돌들의 평화 중재자로 아프리카 나미비아 독립, 코소보에서 세르비아 철군, 인도네시아 아체의 자치권을 중재해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의 만남 중 가장 큰 기억은 2006년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와 아체의 협약 1주년 기념 행사다. 핀란드와 인도네시아의 몇몇 중요 인사와 함께 헬리콥터 아래의 코코넛-야자수 밀림 지를 보며 자유롭게 숲들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언제 이곳에 수십만 명을 희생시킨 쓰나미의 재앙이 있었던가? 자연의 힘에는 경계가 없다.

다음 연사는 베르나르 쿠스너이다. '국경 없는 의학(Medicine sans Frontier)'의 공동 설립자이며 프랑스 외무장관, 유엔 특수 대표단의 경력으로 여기 초청된 것 같다. 그 뒤 토론에 엘리자베스 렌 전 핀란드 국방 장관이 참여했는데, 그녀는 1990년 역사상 첫 여성국방 장관이 되면서 핀란드의 여성 평등주의를 세계에 알렸다.

나는 그녀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 한국 여성잡지 기사 차 노르웨이에서 핀란드로 여행하기 전 국방부가 딱딱할 것으로 생각해 형식적인 질문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헬싱키 시가에 있는 국방부에는 군복 경비원이 보이지 않았고 한가한 엘리베이터가 나를 그녀 방으로 안내했다. 시야에는 나를 반갑게 맞이한 다정한 한 여성이 막 사용한 컴퓨터가 들어왔다. 아아! 이곳 장관들은 직접 글을 쓰는구나. 비서들에게 구술하는 것으로 믿던 나의 의식 경계선이 무너졌다.

국제회의는 연사의 주제발표가 끝나고 청중의 질문 시간이 되었다. 첫 질문자로서 나는 중세기 스페인의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의 공존(Convivencia) 역사를 현시대의 충돌에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한 동양 여자의 자신감에 놀랐는지, 나의 논평에 얼떨떨한 표정이었고 쿠스너와 렌의 눈동자는 반짝거리는 것 같았다. 지중해 지역의 한 대사는 청중들 틈에서 일어나 나에게 말을 건네었다.

연이어 역사가들 세션은 국제 역사로 이름난 옥스퍼드 대학의 마가렐 막밀란 교수로 시작되었다. 특히 동북아시아 세션에서 한 일본 교수는 현 일본 정부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논쟁인 독도 경계선, 역사적으로 중국-한국-일본의 미묘한 관계를 설명했다. 나는 "왜 동북아시아 역사가들이 모여 잘못된 역사를 고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교수의 대답은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었다. 그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역사가들 뒤에는 항상 정치가들이 있다는 점을…"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역사에 진실하고, 만일 왜곡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 역사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되나?

문득 '경계 없는 역사가들'의 창립 기사가 생각난다. 역사가들이 어떻게 중재와 출동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한 해결책은 긍정적인 정치인들과 정부들이 모든 국가의 역사가들의 접촉과 연구를 환영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즉 역사 사건들의 사실들과 해석에 충돌을 해체하고, 국경을 이해하는 모든 당사자의 인식과 해석에 역사가들이 함께 일하도록 격려하라는 것이다. 투오미오야 박사는 그의 네트워크가 한국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앞으로 한국 역사가들과 함께 모임이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정부나 비정부 단체들이 역사가들을 사용하여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기억되고 싶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찬란하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당면하고 인정하며 재해석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국의 경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알고 있는 역사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날, 우리는 더 나은 미래 역사를 누릴 수 있다.

예술가·학자

부산의 큰 목소리, 국제신문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